

남과 북 일심으로 회통하자

통일이념, 왜 원효사상인가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통일 사상' 하면 흔히 원효사상을 떠올린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원효(元曉, 617~686) 스님의 화쟁사상과 원용·회통사상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후문도 전 통일원 장관이 재직 당시 원효 사상으로 통일이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삼국이 분열에서 통합을 모색하는 통일 전후기에 살았던 원효의 삶과 생각을 통해 오늘 이 땅의 민족 모순과 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원효의 통일사상은 어떤 것일까. 사실 불자들조차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는 드문 것 같다. 아마도 원효스님의 실원한 사상세계를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방대한 저술의 양이 말해주듯이, 원효스님의 불교 연구는 대·소승, 경·율·론(經·律·論) 어느 것에도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교학 연구에 있어서 원효스님은 어느 종파에 얽매이지 않았음은 물론 그것을 보다 높은 포괄적 체계 속에 총합시키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금강삼매경론》에서 그는 "만법(萬法)이 일불승(一佛乘)에 총합(總攝)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대해(大海)중에 일체 강물(衆流)이 돌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곧 상호대립적인 사상과 교의를 모두 융화하여 일불승으로 귀결시키려 했다.

원효스님의 대표적 저작이자 가장 독창적 저술인 《십문화쟁론》에서 그의 이같은 사상적 면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불교 교의와 인간의 온갖 다양한 주장들을 없음(空)과 있음(有), 나(人)와

세계(法) 등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묶고 화쟁의 논리에 입각하여 그것을 하나 하나 회통(會通)시키고 있다. 여기서 원효스님은 모든 주장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논리적으로 교통정리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다양한 주의·주장 열린 자세로 수용 논리적 교통정리 회통 전제한 화쟁

그런 의미에서, 원효스님의 중심사상은 화쟁(和諍)사상 또는 화회(和會)사상이라고 고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화쟁'이란 그의 중심 사상이기보다는 '중심 논법'이다. 이 때 그의 화쟁은 반드시 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쟁회통(和諍會通), 즉 화쟁에서 그치지 않고 회통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화쟁보다는 화쟁회통의 준말인 '화회'가 더욱 정확히 그의 중심논법인 셈이다.

화쟁이란 말은 논쟁(諍)을 화해시킨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원효스님은 각기 다른 대립적인 이설(異說)을 회통(會通)시켜 하나의 큰 진리를 찾게 하고



◇원효스님 영정(호림박물관 소장)

자 한 것이다. 화회(和會)의 방법이 있어서, 원효스님은 모든 주장에 대해 옳고 그른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는 않는다. 오직 최고의 진리,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의 뜻으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 때 화쟁회통의 논법을 통해 밝혀진 심성(心性)·세계가 그의 중심사상이다. 불심인 동시에 우리들의 중생심인 일심(一心)사상, 그것이 곧 원효의 중심사상인 것이다.

이 일심사상은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즉 한마음(일심)으로 통일이 가능함을 시

사해 준다. 정치·경제적 통합에 앞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문 '원효의 통일화·부정과 긍정의 화쟁법'을 쓴 고영섭 박사(동국대 강사)는 "마음의 분열을 통해서 세계의 분열이 일어남을 통찰한 원효는 동시에, 마음의 통일을 통해서 세계의 통일이 가능함을 통찰했다"고 강조한다.

학자들은 원효의 통일사상이 갈등과 전쟁의 시대상황에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백제와의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법상과 안에서도 서명 학파와 지은 학파간의 논쟁, 이런 갈등을 조화롭게 화해시키고자 한 사상이 바로 화쟁회통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화쟁회통의 전통은 원용·무애, 원용·회통의 통불교적 사상으로 발전했다. 진리의 세계와 속세가 원만하게 융합되는 화합과 조화의 정신이 의천(義天, 1055~1101)과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사상의 통불교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의 시기가 오면서 새로운 통일사상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 전통사상을 형성해 온 불교는 늦었지만 삼국통일의 기반이 된 원효사상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민족적 통일이념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효와 통일사상과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은 박성배 교수의 '원효의 화쟁 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통일문제' 등 몇 편에 불과하다. '화쟁사상의 연구사적 검토'를 쓴 김성현 동국대 교수는 "원효의 화쟁 사상은 물론 의상의 화엄사상 등 불교가 내포하고 있는 통일관련 사상을 해석적으로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북한의 사찰은 일요일마다 매달 음력 정기기도일 법회는 보지 않지만 매년 부처님 오신날, 열반제일, 성도재일만큼은 통행한다. 사진은 평양시 모란봉에 위치한 용화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장면.

북한불교 현황

절 63곳...스님 3백여명

방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며 매우 무지하다고 지적한다. 스님과 신부, 목사 등 성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스님과 신부를 혼동하는가 하면, 교회나 성당이 새로 건립된 사실을 당 간부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미제의 앞잡이' 또는 '미제의 스파이'로 여기

대표적 불교단체

'조선불교도 연맹'

타종교 비해 활동적

며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불교는 북한의 식자층에 의해 일진왜란 등 민족이 어려울 때 불교가 '구국'에 앞장섰다 하여 애국종교로 이해되고 있으며, 많은 불교문화재의 영향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불교에는 종파가 없다. 1945년 12월26일 북한의 종교단체로서는 최초로 결성된 '조선불교총연맹'을 모체로 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이 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북한불교의 교세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현저하게 약화됐다. 193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31 본산 가운데 9개 본산이 북한에 있었으며, 403개소의 사찰과 49개의 포교당, 1572명의 스님과 72명의 포교사, 37만5438명의 신도가 있었다. 그러나 1946~1948년 북한 정부가 사찰의 토지재산을 몰수하고, 6.25로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교계 북한교류

사찰복원·문화재 공동조사 추진

복지·교육시설 설립등 지원 다변화

지난 10여년 간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불교교류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연계, 불교 지도자의 북한방문 등 인적 교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을 파트너로 한 통일 교류운동이다 보니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북한의 실상을 엿보면서 남북 불교간의 동질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은 그나마 불교계가 거둔 성과이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불교계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각 종단 및 대북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대북교류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특화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북한 사찰 및 문화재 조사·복원사업, 조계종이 현대그룹과 연계해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조계종 화통일불교협회가 금강산 마하연사를, 진각종이 장안사를, 천태종이 개성 영동사 복원 지원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북한 문화재 현황 조사를, 태고종은 남북불교교류협력추진위를 통해 영산재 시연, 불화 및 사찰보수·단정기술 전수, 흥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품 의약품 등의 물품 지원방식도 복지·교육시설 설립, 농업기술 전수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경부철도의 금강역수공방, JTS의 어린이 영양식 공장 운영에 이어 진각종의 최근 성조 통일원장등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불교도를 위한 컴퓨터훈련소 설치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JTS는 북한 라진·선봉지역과 함북 은성군의 4개 농장에 농업자재와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대북농업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12월 종단협·조불련 공동주최의 '6·15 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토론회를 비롯한 통일교육 및 학술



◇어떤 대북사업도 북한 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특히 생활품)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진은 JTS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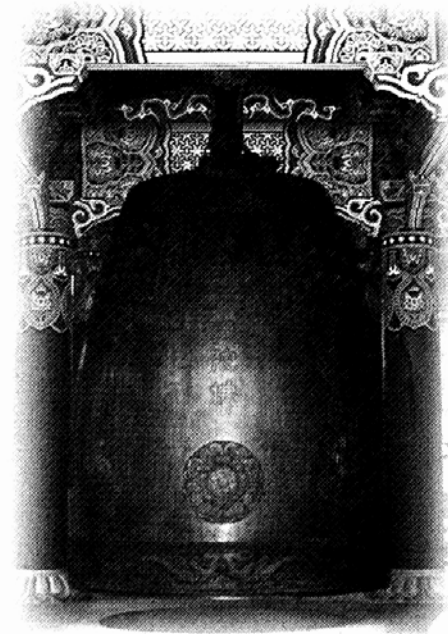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식량난민 면담조사, 국경지역 답사보고서 등으로 교계 내·외에서 북한연구분야의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좋은벗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생활·종교실태 등에 대한 연구와 남한 내의 통일교육도 강화

할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불자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마련, 31본산제 당시 북한지역 8개 본산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태고종 진각종 등도 북한불교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